

시베리아 코락족 <까마귀 신화>에 나타난 혼인풍속의 양상과 의미 연구

곽진석*

차 례

- | | |
|---------------------------------|---------------------------------|
| I. 서론 | IV. 코락족 <까마귀 신화>에 나타난 혼인 풍속의 의미 |
| II. 코락족 신화 속의 까마귀 위상 | V. 결론 |
| III. 코락족 <까마귀 신화>에 나타난 혼인풍속의 양상 | |

국문초록

이 글에서 혼인 모티프를 포함하고 있는 <까마귀 신화> 가운데 까마귀 자식들 사이의 혼인 또는 까마귀 자식들과 그들의 친척 사이의 혼인을 다루고 있는 신화에 나타나는 까마귀의 위상과 함께 혼인풍속의 양상과 의미를 밝혔다.

코락족 신화에서 까마귀는 다양한 위상으로 나타난다. 변형자 또는 조정자, '최초의 조상', 문화영웅, 트릭스터, 샤먼, 신(神)의 사자(使者)로서의 위상이 그것이다.

까마귀 자식들 사이의 혼인 또는 까마귀 자식들과 그들의 친척 사이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의 혼인을 다루는 코락족 신화에서 근친혼 가운데 남매혼과 사촌혼의 모티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신화는 ‘근친혼 → 중재 → 근친혼 허용/불허’를 그 기본구조로 삼는다.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남매혼과 사촌혼 모티프를 포함하는 코락족 신화는 다양한 변이를 보여준다.

먼저 코락족 신화에서 남매혼은 어떤 중재 과정을 거치더라도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이와 달리 사촌혼은 일정한 중재 과정을 거치면 허용된다. 그러나 어떤 신화에서는 사촌혼이 어떤 중재 과정을 거치더라도 불허된다. 한 신화에서는 이 같은 사촌혼이 불허된 다음 교환혼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혼인 모티프를 포함하고 있는 코락족 신화의 다양한 변이는 곧 그들의 혼인풍속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즉, 코락족 신화에서 보이는 ‘남매혼 불허’ → ‘사촌혼 허용’ → ‘사촌혼 불허’(사촌혼 혼적) → ‘교환혼 허용’으로의 변화는 그들의 혼인 풍속이 점차 족내혼에서 족외혼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자연적인 교환 관계를 파괴하는 근친혼은 사회적인 그리고 자연적인 영역에서 혼돈을 야기한다. 따라서 코락족 신화에 반영된 족내혼에서 족외혼으로의 변화는, 사회적인 그리고 자연적인 영역의 혼돈이 점차 질서의 상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주제어 : 까마귀 신화, 까마귀 위상, 남매혼, 사촌혼, 교환혼, 족내혼, 족외혼, 혼인풍속

I. 서론

코락족koryak은 현재 대부분 캄차트카주 코락족관구에 거주하는 고아시아족paleoasiatic의 한 갈래다. 그들의 언어는 고아시아어에 속하는 코락어다. 그리고 그들의 경제활동은 순록 사육, 바다동물 사냥, 수렵, 어

로 등이다.¹⁾

코랴족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하나는 해안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그룹이고, 다른 하나는 순록을 유목하는 그룹이다. 그들의 인구는 2000년 통계에 의하면 약 9천 명이다.²⁾

코랴족의 각종 민간전승은 처음 18세기 말~19세기 초에 G. W. Steller(*Beschreibung von dem Lande Kamtschatka*, Frankfurt und Leipzig, 1774.)와 С. П. Крашенинников(*Описание Земли Камчатка*, Т. I, II,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1819.)에 의해 수집되기 시작했다. 그 후 19세기 말~20세기 초 W. Jochelson(*The Koryak: Religion and Myths, The Jesup North Pacific Expedition*, Vol. VI, Leiden and New York, 1905.)과 Г. А. Меновщикова(*Чукотские, Корякские, Эскимосские Сказки*, Хабаровск, 1950.)에 의해 본격적으로 수집되었다.³⁾

그들에 의해 수집된 코랴족의 민간전승은 대체로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로 구분된다. 전자에는 대체로 설화, 샤머니즘, 주문(呪文), 축제, 속신(俗信) 등이 포함되고, 후자에는 호부(護符), 가옥, 의복, 예술품, 제품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설화는 다양한 장르로 나타난다. 땅, 천체, 사람, 동물의 기원이나 질병, 죽음의 발생 등을 설명하는 신화와 이민족과의 충돌이나 전쟁 등을 이야기하는 전설, 그리고 수렵, 유목, 의례, 관습 등 실제적인 생활을 묘사하는 민담이 그것이다.⁴⁾

Jochelson이 분류한 코랴족 설화 유형 24개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큰-까마귀’Big-Raven 및 그의 가족과 관련된 신화다.⁵⁾ 그리고 이런 신화

1) M. G. Levin and L. P. Potapov ed., *The Peoples of Siberia*, The Univ. of Chicago, 1964, pp.851-857.

2) В. А. Тишков ed., *Народы и Религии Мира*, Москва, 2000, p.260.

3) Е. М. Мелетинский, *Палеоазиатский Мифологический Эпос*, Москва, 1979, p.33.

4) А. И. Крушанова,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Коряко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1993, p.147.

5) W. Jochelson, *The Koryak: Religion and Myths, The Jesup North Pacific*

가운데 몇 개의 유형은 ‘큰-까마귀’ 아들과 딸의 혼인 모티프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까마귀 신화>가 코락족 설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까마귀 신화>의 주요한 모티프 가운데 하나가 혼인 모티프라는 것을 말해 준다.

이 글에서는 혼인 모티프를 포함하고 있는 <까마귀 신화> 가운데 까마귀 자식들 사이의 혼인 또는 까마귀 자식들과 그들의 친척 사이의 혼인을 다루고 있는 신화에 나타나는 까마귀의 위상과 함께 혼인풍속의 양상과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여기서 살핀 결과들은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는 ‘삼족오’에 대한 관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신화나 민속 등 각종 민간전승에 등장하는 까마귀의 기능이나 의미를 파악하는 데도 시사하는 점이 있을 것이다. 코락족을 포함하는 고아시아족이 우리나라 신석기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II. 코락족 신화 속의 까마귀 위상

코락족은 까마귀를 ‘쿠이크이나쿠로’ 부른다. 이 이름은 ‘큰-까마귀’를 의미한다. 이 같은 까마귀는 코락족의 민간전승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인 삶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⁶⁾ 그만큼 까마귀는 코락족의 일상적인 삶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까닭으로 까마귀는 코락족의 신화에서 다양한 위상을 차지한다.

① 변형자 또는 조정자

Expedition, Vol. VI, Leiden and New York, 1908, pp.352-354.

6) *Ibid.*, p.118.

[자료 1]

사람-까마귀 ‘벨빔틸르인’이 해를 삼켜 버렸다. 그러자 눈보라가 몰아쳤다. ‘큰-까마귀’ ‘쿠이크이나쿠’의 아들 ‘에멤쿠트’가 자신의 딸 ‘클류케네브이트’에게 ‘벨빔틸르인’을 데려오도록 했다. 그녀가 ‘벨빔틸르인’을 데려오지 못하자 그는 자신의 딸 ‘이니아나브이트’에게 그 일을 시켰다. ‘벨빔틸르인’은 그녀를 만나자 기뻐 큰 소리로 웃으면서 해를 내뿔었다. 그러자 눈보라가 그치면서 하늘이 맑게 개었다. 그녀는 ‘벨빔틸르인’과 함께 ‘에멤쿠트’에게 돌아가려고 할 때 날카로운 막대기로 그를 찔렀다. 이때부터 ‘벨빔틸르인’이 해를 삼키지 못하게 되자 눈보라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하늘이 항상 맑았다.⁷⁾

[자료 2]

‘큰-까마귀’ ‘쿠트퀴냐쿠’는 배가 고팠다. 이때 바닷게 아버가 그를 집으로 데려가 마른 고기를 주면서 물은 주지 않았다. 그는 목이 말라 한밤중에 일어나 사람들을 찾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물통에 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강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강에 물은 없고 마른 돌만 있었다. 그는 돌아와 물을 주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 ‘위네아네우트’를 주겠다고 말했다. 바닷게는 다른 딸을 줄것을 요구했다. 그는 바닷게에게 자신의 딸 ‘아냐룩차나우트’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바닷게는 그에게 마실 물을 주었다. 그는 갈증을 해소한 다음 강으로 가서 모든 강물도 마셔 버렸다. 그는 집으로 돌아온 후 마신 물을 토해 강을 만들었다.⁸⁾

코락족은 ‘큰-까마귀’를 ‘창조자’Creator ‘테난토르완’ 또는 ‘쿠이크이나쿠’, ‘쿠트퀴냐쿠’와 동일시한다.⁹⁾ 그러나 ‘큰-까마귀’는 세계의 창조자이기보다는 오히려 세계의 변형자 또는 조정자로 나타난다. 세계의 모든 것은 그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의 창조 행위는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고,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7) Г. А. Меновщикова, *Сказки и Мифы Народов Чукотки и Камчатки*, Москва, 1974, pp.418-419.

8) W. Jochelson, op. cit., pp.311-312.

9) Ibid., p.17.

데 있다. [자료 1]에서 ‘큰-까마귀’의 손녀 ‘이니아나브이트’가 해를 창조하기보다는 사라진 해를 되찾아 본래의 자리에 돌려놓고, [자료 2]에서 ‘큰-까마귀’ ‘쿠트퀴냐쿠’가 최초로 강을 만들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강을 다른 강으로 바꾸어놓는 사실에서 세계의 변형자 또는 조정자로서의 ‘큰-까마귀’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최초의 조상

[자료 3]

창조자 ‘테난토르완’은 아버지 ‘토무겔’, 어머니 ‘하나’와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여름에 ‘토무겔’은 마을사람들과 함께 고래를 잡아 그 고기를 나누었다. 가을에 ‘토무겔’은 고래축제를 거행했다. 그러나 죽은 고래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아 그는 고래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 없었다. 그는 앞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집에 ‘테난토르완’을 혼자 남겨두고 아내와 함께 멀리 떠났다. 그때 ‘토무겔’은 ‘테난토르완’에게 활과 화살을 주었다. 바로 그때 새벽-사람 ‘기틸릴란’ 역시 고래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 없어서 딸 ‘미티’를 집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 그때 ‘기틸릴란’은 마멋[다람쥐과의 설치동물]과 함께 올가미를 딸에게 주었다. 어느 날 ‘테난토르완’이 사냥을 나갔다가 ‘미티’를 만났다. 그들은, 서로 자신들이 지상에 남은 유일한 남자와 여자라고 말하면서 혼인했다. 얼마 후 그들은 아들 ‘에멤쿠트’와 딸 ‘위네아네우트’를 낳았다. 코락족은 그들의 후손이다. (후략)¹⁰⁾

코락족의 민간전승에서 ‘큰-까마귀’는 최초의 조상이다. 그들은 까마귀를 ‘아치체냐쿠’, 즉 ‘큰-할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런 명칭은 후손을 보호하는 직접적인 조상 그리고 최초의 마을주민을 의미하는 ‘할아버지’ 숭배와 관련된다.¹¹⁾ 따라서 까마귀는 범민족적인 ‘최초의 조상’으로 간주된다. [자료 3]에서 지상에 남은 유일한 남자와 여자인 ‘테난토르완’과

10) Ibid., pp.159-161.

11) E. M. Мелетинский, op. cit., p.39.

‘미티’의 혼인을 통해 코랴족의 후손이 태어났다는 것은 곧 까마귀가 그들의 ‘최초의 조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③ 문화영웅

[자료 4]

‘에멤쿠트’는 항상 고래를 사냥하여 마을로 가져온 후 고래 축제를 거행하기 위해 이웃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축제에 참석한 까치-여자와 까치-남자 그리고 까마귀-여자에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하라고 말했다. 춤과 노래가 끝나자 그는 배설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창고에 까치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까치 가운데 한 마리가 “순록 배설물, 개 배설물!” 하면서 노래했다. ‘에멤쿠트’는 ‘우리가 언제 순록 배설물과 개 배설물을 먹었느냐? 거짓말하지 마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까치는 무안해 하면서 멀리 날아가 버렸다. 그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까마귀-여자는 ‘위네아네우트’가 개 가죽을 벗기는 것을 도왔다. ‘위네아네우트’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까마귀-여자는 재빠르게 개 눈 한 개를 쪼아 먹었다. ‘위네아네우트’가 까마귀-여자에게 개 눈을 먹었느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먹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개 가죽을 벗기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고래를 집으로 보내는 축제가 끝났다. 손님들은 고래 기름, 가죽, 그리고 고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에멤쿠트’는 계속 고래를 사냥했다.¹²⁾

[자료 4]에 의하면 ‘큰-까마귀’의 아들 ‘에멤쿠트’는 고래 축제를 거행한다. 코랴족은 고래 축제와 더불어 바다표범 축제, 순록 축제 등도 거행한다. 이런 축제의 목적은 일련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죽은 동물의 영혼을 그들의 세계로 돌려보내는 데 있다. 이때 코랴족은 죽은 동물의 영혼을 성대하게 접대함으로써 그들이 새로운 육체를 얻어 다시 사람들의 세계로 돌아오기를 기원한다.¹³⁾ 이 같은 고래 축제를 ‘에멤쿠트’가 부족

12) W. Jochelson, op. cit., pp.265-266.

13) И. С. Гурвич, “Корякские Промысловые Праздники”, *Сибирский Этног*

들을 대표하여 거행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의 문화영웅적인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람들에게 바다동물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북과 배를 주며 질병을 물리치는 주문(呪文)을 알려 주는 데서도 까마귀의 문화영웅적인 위상이 나타난다.¹⁴⁾

④ 트릭스터

[자료 5]

(전략) 어느 날 아침 창조자 ‘테난토프완’이 나무를 모으기 위해 해안가를 걷다가 연어를 발견하고 발로 찼다. 그러자 연어들은 늙은 남자와 여자로 변했고, 그는 젊은 여자로 변했다. ‘테난토프완’은 아들을 놀리고 싶어 했다. ‘에멤쿠트’와 그의 형제는 해안가로 가서 아버지를 찾아보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어느 날 ‘에멤쿠트’는 아버지를 찾으러 갔다가 한 움막 밖에 앉아 있던 젊은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에멤쿠트’에게 그의 아버지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는 접대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그녀가 젊을 때의 아버지를 닮았다고 말했다. 다음 날 그는 그의 형제와 함께 다시 그녀의 움막으로 갔다. 거기서 동생 <큰 빛>은 움막 들보에 매달린 방울을 보았다. 그녀는 종을 만지지 못하게 한 다음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젊은 여자로 변하여 아들과 함께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녀는 손님들을 접대한 후에 ‘미티’에게 왜 왔느냐고 물었다. ‘미티’는 남편을 찾으러 왔다고 말했다. 그때 <큰 빛>은 들보에 매달린 두 개의 작은 방울과 바늘쌈을 흔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성기와 고환이라는 것을 알고 멈추었다. 그 후 ‘미티’도, 그녀가 만지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계속 만졌다. 결국 그의 목소리는 원래 목소리로 돌아왔고, 움막은 바위로 변했다. 늙은 사람 대신에 죽은 연어가 땅에 누워 있었고, ‘테난토프완’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 이전처럼 살았다.¹⁵⁾

раф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IV, Москва, 1962, p.254.

14) W. Jochelson, op. cit., p.22.

15) Ibid., pp.193-196.

[자료 5]에서 까마귀는 아들들을 놀리고 싶어 장난을 친다. 그 장난의 핵심은 변신이고 속임수다. 까마귀는 결국 변신과 속임수를 통해 아들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놀리는 데 성공한다. 이때 까마귀는 장난스러운 변신 능력을 지니고 짓곳은 장난꾸러기라는 트릭스터의 위상을 보여준다.

이 같은 까마귀의 변신과 속임수는 샤머니즘적인 특징을 갖는다. 샤먼은 질병이나 죽음을 야기하는 사악한 정령과 싸울 때 변신을 하기도 하고 속임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¹⁶⁾ [자료 5]에서 보이는 까마귀의 변신과 속임수는 근본적으로 샤머니즘적인 특징과 맞닿아 있고, 까마귀는 샤먼의 위상을 가진 것으로도 간주된다.

⑤ 샤먼

[자료 6]

창조자 '테난토트완'은 주변에 '칼라우'[사악한 정령]가 있어서 그의 아들들이 아프다고 생각했다. 그는 까마귀로 변신한 다음 '칼라우' 집으로 날아가 내일 자신의 집을 공격하여 가족들을 모두 죽이자는 그들의 말을 엿들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사람으로 변신하였다. 그는 다음 날 집으로 찾아온 '칼라우'들을 난로 위 대들보에 앉도록 한 다음 불을 세계 지켰다. '칼라우'들이 구워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이곳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테니 놓아줄 것을 창조자에게 간청했다. 그러나 그는, 너희들은 사람 고기를 좋아하는데 왜 우리를 먹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들의 간청을 거절했다. '칼라우'들은 다른 '칼라우'들도 데리고 갈 테니 놓아줄 것을 다시 한 번 간청했다. 창조자의 아들들은 다른 '칼라우'들이 집 밖으로 나간 것을 확인한 다음 그들을 놓아주었다. 그들이 떠난 후 창조자의 아들들은 회복되었고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았다.¹⁷⁾

16) E. M. Мелетинский, op. cit., p.43.

17) W. Jochelson, op. cit., pp.149-150.

[자료 6]에서 ‘테난토르완’은 사악한 정령 ‘칼라우’ 때문에 사람이 병에 걸린다는 것을 알아차린 후에 까마귀로 변신하여 사악한 정령의 말을 엿듣고, 또 속임수를 사용하여 ‘칼라우’들을 위기에 빠트린다. 이런 행위들은 사머니즘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샤먼의 권능들이다. 그의 권능에 의해 ‘칼라우’들이 떠나고, 그 결과 병이 치료된다는 점에서 창조자 ‘테난토르완’, 즉 까마귀는 샤먼의 위상을 갖고 있다.

⑥ 신(神)의 사자(使者)

‘큰 까마귀’의 유래와 관련된 코랴족의 설명에 의하면, ‘최고의 존재’ The Supreme Being가 일찍이 하늘에서 칼을 갈고 있었다. 그때 솟돌의 먼지가 지상에 떨어져 사람으로 변했는데 그가 곧 ‘큰 까마귀’다. 또 다른 설명에 의하면 ‘최고의 존재’가 ‘큰-까마귀’를 만든 다음 질서를 확립하도록 그를 지상으로 내려 보냈다.¹⁸⁾

코랴족에 의하면, ‘최고의 존재’를 일컫는 가장 널리 알려진 명칭은 ‘에트이느이’ 또는 ‘에타느이’다. 이 명칭의 의미는 신이다.¹⁹⁾ 따라서 까마귀는 ‘최고의 존재’, 즉 신과 사람 사이를 매개하는 신의 사자라는 위상을 갖는다.

Ⅲ. 코랴족 <까마귀 신화>에 나타난 혼인풍속의 양상

까마귀 자식들 사이의 혼인 또는 까마귀 자식들과 그들의 친척 사이의 혼인을 다루는 신화에서 족내혼 가운데 근친혼의 모티프를 확인할 수 있다. 코랴족 신화에서 이러한 혼인은 주로 남매혼과 사촌혼의 형태

18) Ibid., p.19.

19) В. В. Антропова, “Представления Коряков о рождении, Болезни и Смерти”, И. С. Вдовин ed., *Природа и Человек в Религиозных Представлениях Народов Сибири и Севера*, Ленинград, 1976, p.255.

로 나타난다.

[자료 7]

창조자 ‘테난토트르완’은 아버지 ‘토무겔’, 어머니 ‘하나’와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여름에 ‘토무겔’은 마을사람들과 함께 고래를 잡아 그 고기를 나누었다. 가을에 ‘토무겔’은 고래축제를 거행했다. 그러나 죽은 고래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아 그는 고래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 없었다. 그는 앞으로 죽게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집에 ‘테난토트르완’을 혼자 남겨두고 아내와 함께 멀리 떠났다. 그때 ‘토무겔’은 ‘테난토트르완’에게 활과 화살을 주었다. 바로 그때 새벽-사람 ‘기틸릴란’ 역시 고래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 없어서 딸 ‘미티’를 집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 그때 ‘기틸릴란’은 마멋[다람쥐과의 설치동물]과 함께 울가미를 딸에게 주었다. 어느 날 ‘테난토트르완’이 사냥을 나갔다가 ‘미티’를 만났다. 그들은, 서로 자신들이 지상에 남은 유일한 남자와 여자라고 말하면서 혼인했다. 그들은 사냥을 하면서 살았다. 얼마 후 그들은 아들 ‘에멤쿠트’와 딸 ‘위네아네우트’를 낳았다. 그들은 딸을 낳은 후 그녀를 멀리 떨어진 다른 집에 데려다 놓았다. 오빠는 누이가 있다는 것을 몰랐지만, 누이는 오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에멤쿠트’는 매일 순록을 사냥하여 집으로 끌고 왔다. 어느 날 그는 사냥 후 집으로 돌아오다가 어떤 집을 발견하고 들어갔다. 그곳에 ‘위네아네우트’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녀와 혼인하려고 했다. 그녀가 거부했지만, 그는 그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혼인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나무랐지만 그는 계속 누이와 함께 살았다. 어느 날 ‘카막냐쿠’의 아내인 ‘위네아네우트’가 창조자의 집 근처에서 열매를 따다가 창조자의 딸 ‘위네아네우트’를 만났다. 창조자의 딸 ‘위네아네우트’는 새로 도착한 ‘위네아네우트’에게 자신의 남편이 오빠인 것이 부끄럽다고 말하면서 남편을 서로 바꾸자고 했다. 그들은 서로 남편을 바꾸었다. 새로 도착한 ‘위네아네우트’는 ‘에멤쿠트’의 아내가 되었고, 창조자의 딸 ‘위네아네우트’는 ‘카막냐쿠’의 아내가 되었다. 그 후 ‘에멤쿠트’는 매우 잘 살았다.²⁰⁾

20) W. Jochelson, op. cit., pp.159-161.

[자료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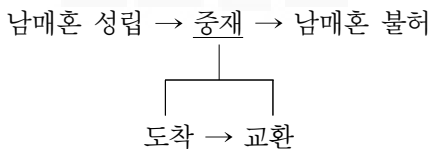
남매가 함께 살았다. 누이는 오빠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오빠가 만들고 있던 화살을 보고 말았다. 그러자 화살이 부러졌다. 그녀는 집에서 쫓겨나 덩불에서 길을 잃고 해마다 곰 굴을 발견했다. ‘곰-소녀’는 그녀를 새로운 친구로 생각하고 기뻐 날뛰었다. ‘곰-소녀’는 환영의 표시로 그녀의 코트를 여러 번 물어뜯었다. 이때 나이 든 ‘곰-여자’가 ‘곰-소녀’를 말리면서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다. 그녀는 집 안에서 코트를 잘 수선했다. ‘곰-여자’는, 자신의 아들이 그녀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녀를 숨겼다. 잠시 후 젊은 곰 다섯 마리가 집으로 들어와 여자 냄새가 난다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들은 ‘곰-소녀’에게 살찐 연어 머리를 던져주고 연골을 발라내도록 했다. 이때 그녀는 ‘곰-소녀’를 도와 연골을 발라냈다. 저녁을 먹은 후 ‘곰-남자’들은 잤다. 나이 든 ‘곰-여자’는 그녀에게 지금 떠나라고 말했다. 한밤중에 나이 든 ‘곰-여자’가 막내에게 훌륭한 신밧감이 왔다가 다시 가버렸으니 그녀를 데리고 오라고 말했다. 젊은 곰이 뒤따라갔지만 마을 사람들이 화살을 쏘아 곰을 죽였다. 그녀는 곰 가죽을 벗기자 나타난 훌륭한 젊은 이와 혼인했다. 그러자 그녀의 사촌도 화살을 만드는 것을 보지 말라는 오빠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화살을 보았다. 그러나 화살이 부러지지 않자 그녀는 고의로 화살을 부러뜨렸다. 그래도 오빠는 그녀를 내쫓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집을 떠났다. 그녀도 역시 숲 속을 해마다가 곰 굴을 발견했다. ‘곰-소녀’가 그녀의 코트를 끌어당겼다. 나이 든 ‘곰-여자’가 나타나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다. 그녀는 집 안에서 코트를 잘 수선했다. ‘곰-여자’는, ‘곰-남자’가 오자 그녀를 숨겼다. ‘곰-남자’가 자러 가자 그녀에게 떠나라고 말했다. 그녀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팡 닫았다. ‘곰-여자’는 그녀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곰-여자’는 아들을 깨우지 않고 털이 많은 큰 개로 하여금 그녀를 뒤따라가도록 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뒤따라 온 개를 죽여 가죽을 벗겼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²¹⁾

[자료 7]과 [자료 8]에는 근친혼 가운데 남매혼의 모티프가 반영되어 있다. [자료 7]에서 ‘에뎀쿠트’와 ‘위네아네우트’, 즉 남매 사이에 혼인이

21) Ibid., pp.338-339.

이루어지고 있다. 서로 남매 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누이가 거부했지만, 오빠는 누이의 말을 믿지 않고 억지로 혼인한다. 둘 사이에 남매혼이 성립된 셈이다. 부모는 그런 혼인을 강행한 오빠를 비난했지만 둘의 혼인은 지속된다. 누이는 남매 사이의 혼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그런 혼인을 적극적으로 중재하려고 한다. 누이가 남매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녀가 ‘카막냐쿠’의 아내 ‘위네아네우트’에게 자신의 남편이 오빠인 것이 부끄럽다고 말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중재 과정에서 먼저 ‘카막냐쿠’의 아내 ‘위네아네우트’가 ‘에멤쿠트’의 누이이자 아내 ‘위네아네우트’의 집에 도착한다. 이때 ‘에멤쿠트’의 누이가 ‘카막냐쿠’의 아내 ‘위네아네우트’에게 서로의 남편을 교환할 것을 제안하고, ‘카막냐쿠’의 아내 ‘위네아네우트’는 그 제안을 수락한다. 여기에 ‘제안/수락’의 이원적인 기능의 쌍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이 서로의 남편을 교환하고, 그 결과 ‘에멤쿠트’가 매우 잘 살게 됨으로써 결국 남매혼은 허용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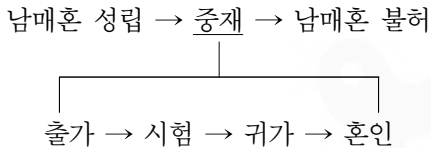
[자료 7]의 구조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8]도 [자료 7]처럼 중재를 거쳐 결국 남매혼이 지속되지 않는 과정을 보여준다. [자료 8]에서 “남매가 함께 살았다.”는 진술은 사실상 남매혼이 성립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빠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누이는 그 금지를 위반한다. 여기에 ‘금지/금지 위반’의 이원적인 기능의 쌍이 내포되어 있다. 그 결과 누이는 오빠에 의해 집에서 추방된다. 이것은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이면서 동시에 남매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표

현이다. 이후에 누이는 곰 굴에서 시험을 받는다. 코트를 잘 수선하고 곰-소녀를 도와 연어의 연골을 발라내는 것이 그것이다. 누이는 그 시험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여기에 ‘과제/과제 수행’의 이원적인 기능의 쌍이 내포되어 있다. 이 기능의 쌍에 의해 ‘금지/금지 위반’에 의해 야기된 누이의 처벌이 무효화된다. 그 결과 누이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중재 과정을 거쳐 결국 남매혼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료 8]의 구조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9]

창조자 ‘테난토르완’과 그의 아내 ‘미티’가 아들 ‘에멤쿠트’, 딸 ‘위네아 네우트’, 조카 ‘일랴’, 조카딸 ‘킬류’와 함께 살고 있었다. 창조자는 이웃에 사람들이 없어 ‘에멤쿠트’와 ‘킬류’, ‘일랴’와 ‘위네아네우트’를 서로 혼인시켰다. 그 후 창조자는 ‘에멤쿠트’와 ‘일랴’에게 광야로 가 그곳에서 사냥하면서 살라고 말했다. 그들은 멀리 떠났고, 창조자는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다. 어느 날 창조자는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너무 게을러 사냥하기 위해 매일 바닷가로 갈 수가 없소. 바다 저 너머로 갈 테니 당신은 집에 있으시오. 당신의 음문(陰門)을 잘라 그것으로 개를 만들어 친구로 삼으시오. 나는 내 성기(性器)를 잘라 심부름을 해줄 개로 만들겠소.” 창조자가 바다로 떠난 후 아내는 남편의 지시대로 했다. 창조자도 자신의 말처럼 했다. 그는 개에게 집에 가서 작살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는 집으로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미티’의 포피 코트 아래만 기어 다녔다. 그녀는, 그것이 남편의 개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남편이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 갔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처럼 말하는 개를 만들어야 심부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자는 아내의 말대로 했다. 한번은 ‘에멤쿠트’가 아내 ‘킬류’에게 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말했다. 그들이 창조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향해 짓고 있던 개를 보았다. ‘킬류’가 개를 보고 옷자, ‘미티’가 그것들은 자신들의 성기로 만든 것이니 옷지 못하도록 했다. ‘에멤쿠트’는 더 이상 홀로 부족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자와 ‘미티’는 개를 원래 모습으로 바꾸어 제 자리에 돌려놓았다. ‘에멤쿠트’는 부모를 따라 광야로 나갔다. 잠시 후 순록 부족 가운데 <시기심이 강한 사람>이 ‘에멤쿠트’에게 와서 자신들의 아내로 하여금 시험을 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두 번의 시험에서 ‘에멤쿠트’의 아내가 이겼다. 그는 잔치를 열었다.²²⁾

[자료 10]

‘에멤쿠트’는 ‘킬류’와 혼인했다. 그는 광야로 갔다. 강 상류로 올라가다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사람들을 보았다. 그는 서둘러 어부들도왔고, 그들 중 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한번은 ‘킬류’가 불안하여 남편을 찾으러 갔다. 그녀는 이전에 남편이 도와주었던 어부들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남편의 새로운 아내를 죽여 버렸다. ‘에멤쿠트’는 할 수 없이 ‘킬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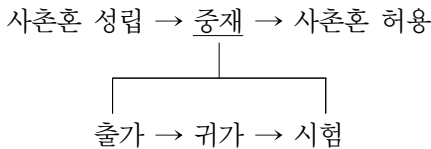
[자료 9]와 [자료 10]에는 [자료 7], [자료 8]과 달리 근친혼 가운데 사촌혼의 모티프가 반영되어 있다. [자료 9]에서 ‘에멤쿠트’와 ‘킬류’ 그리고 ‘일랴’와 ‘위네아네우트’가 혼인을 한다. 이 두 혼인은 모두 사촌 사이에 이루어진 일종의 사촌혼이다. 그 후 ‘테난토르완’은 ‘에멤쿠트’와 ‘일랴’에게 광야로 가서 살 것을 명령했고, 그들은 그 명령에 복종하여 집을 떠난다. 여기에 ‘명령/복종’의 이원적인 기능의 쌍이 내포되어 있다. 이럴 경우 그들이 광야로 떠나는 것은 사촌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촌혼을 한 그들에 대한 처벌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에멤쿠트’와 ‘킬류’가 집으로 돌아온 후, ‘킬류’는 시험을 받는다. 이것은 ‘테난토르완’의 명령에 대한 불복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사촌혼에 대한 정당성을 보장받는 과정이기도 하다. 결국 그녀에 의해 수행된 ‘시

22) Ibid., pp.139-140.

23) Ibid., pp.294-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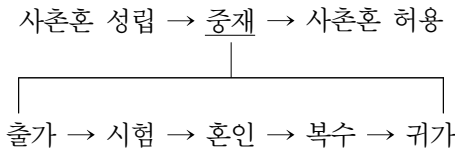
합/승리'의 이원적인 기능의 쌍에 의해 그들의 혼인이 인정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킬류'가 두 번의 시험에서 이겼을 때 '에멤쿠트'가 잔치를 열었다는 진술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중재 과정을 거쳐 사촌혼이 허용된다.

[자료 9]의 구조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10]에서도 '에멤쿠트'와 '킬류'가 혼인을 한다. 이 혼인도 역시 사촌 사이에 이루어진 사촌혼이다. 그 후 '에멤쿠트'가 광야로 가는데, 이것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사촌혼에 대한 처벌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는 광야에서 어부를 돕는 시험을 받는다. 그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그는 새로운 아내를 맞는다. 이것에는 사촌혼을 회피하려는 그의 잠재적인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전처인 '킬류'가 새로운 아내를 죽임으로써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사촌혼을 회피하려는 그의 의도가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중재 과정을 거쳐 사촌혼이 허용된다.

[자료 10]의 구조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11]

'에멤쿠트'는 사촌누이 '킬류'와 혼인했다. 어느 날 그는 강 상류로 올

라가다가 ‘뿌리-남자’의 집을 발견하고 들어갔다. ‘뿌리-남자’의 딸 ‘풀-여자’가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주었다. 이때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 구혼했다. 그는 ‘뿌리-남자’를 속이고 그녀와 혼인한 다음 거기서 살았다. 얼마 후 ‘킬류’는, 남편이 ‘풀-여자’와 혼인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찾으러 갔다. 그녀는 화가 나서 ‘풀-여자’를 죽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 ‘킬류’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이미 그녀는 집을 떠나버렸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원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안개-남자’가 ‘에멤쿠트’의 누이 ‘위네아네우트’와 혼인하기 위해 왔다. 그러나 그는 ‘안개-남자’에게 ‘킬류’를 데려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개-남자’는 그녀를 찾아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있었다. 이때 ‘큰-할아버지’가 먹이를 주기 위해 개를 부르자, ‘안개-남자’와 ‘킬류’가 타고 있던 썰매를 끌던 순록들이 개로 변하여 다시 ‘에멤쿠트’의 집으로 돌아갔다. ‘안개-남자’는 할 수 없이 혼자 집으로 돌아갔고, ‘킬류’만 홀로 남게 되었다.²⁴⁾

[자료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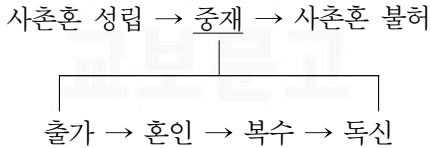
‘큰-까마귀’ ‘퀴키냐쿠’의 아들 ‘에멤쿠트’의 아내는 ‘킬류’였다. 어느 날 그녀는 열매를 따러 갔다가 구름에서 내려오던 ‘구름-남자’ ‘야할란’을 보았다. 그녀는 그 남자의 칼을 몰래 훔쳐 집으로 가져왔다. ‘에멤쿠트’는 시합을 하러 구름으로 가기 위해 부족의 여자들에게 새로운 옷을 짓도록 했다. 아내 ‘킬류’와 어머니 ‘미티’는 바느질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에멤쿠트’는 칼을 갈기 위해 숫돌을 찾다가 아내가 숨겨둔 칼을 발견했다. 이때 그는 아내에게 새로운 남편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죽인 다음 멀리 던져 버렸다. ‘구름-남자’는 죽은 ‘킬류’를 소생시켜 그의 아내로 삼았다. ‘에멤쿠트’는 구름 마을에서 공차기, 격투기 시합을 하여 이겼다. ‘구름-남자’는 그에게 자신의 누이 ‘야할냐우트’를 보내어 혼인하게 하였다. 그 후에 ‘킬류’는 아버지 ‘사이사냐쿠’, 어머니 ‘하나’, 그리고 오빠 ‘일랴’와 함께 지상에 내려와 ‘큰-까마귀’와 함께 살았다. 어느 날 ‘구름-남자’가 구름 부족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왔다. 이때 ‘에멤쿠트’는 ‘구름-남자’에게 자신의 누이 ‘위네아네우트’를 보내어 혼인하게 하였다. 그 후 구름 부족은 ‘에멤쿠트’의 가족과 관련을 맺게 되었다.²⁵⁾

24) Ibid., pp.209-210.

[자료 11]과 [자료 12]에는 [자료 9], [자료 10]처럼 근친혼 가운데 사촌혼의 모티프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자료 11]과 [자료 12]는 [자료 9], [자료 10]과 달리 어떤 중재 과정 속에서도 사촌혼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자료 11]에서도 ‘에멤쿠트’와 ‘킬류’가 혼인을 한다. 이 혼인도 역시 사촌 사이에 이루어진 사촌혼이다. 그 후 [자료 10]에서처럼 ‘에멤쿠트’는 광야로 가는데, 이것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사촌혼에 대한 처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아내를 맞는다. 이것은 사촌혼을 회피하려는 그의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 이때 새로운 혼인은 ‘에멤쿠트’와 ‘뿌리-남자’ 사이의 ‘속임/속음’의 이원적인 기능의 쌍에 의해 실현된다. 그러나 ‘킬류’가 새로운 아내를 죽임으로써 그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살게 된다. ‘킬류’도 결국에는 혼자 살게 된다. 이 같은 중재 과정 속에서 사촌혼이 결국 허용되지 않는다.

[자료 11]의 구조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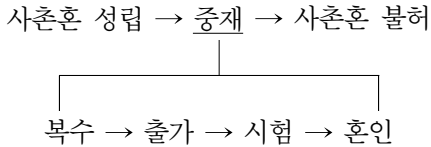


[자료 12]에서도 ‘에멤쿠트’와 ‘킬류’는 역시 사촌혼으로 맺어진 부부다. 어느 날 그는 아내를 죽인다. 물론 그의 오해에서 비롯된 복수지만 여기에는 사촌혼을 회피하려는 그의 의도가 잠재되어 있다. 그 후 그는 집을 떠나 구름 마을로 가서 시험을 받는다. ‘시험/승리’의 이원적인 기능의 쌍이 내재된 시험을 통과한 그는 새로운 아내를 맞는다. 이것 또한 ‘킬류’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사촌혼을 회피하려는 그의 의도가 실현된 결과다. 이런 점은 ‘킬류’와 관련하여 ‘죽음 → 재생 → 혼인 → 독신’의

25) Ibid., pp.253-254.

로 이어지는 기능들의 연쇄에서도 확인된다. 이 같은 중재 과정을 거쳐 결국 사촌혼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료 12]의 구조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IV. 코락족 <까마귀 신화>에 나타난 혼인풍속의 의미

남매혼과 사촌혼 모티프를 포함하고 있는 코락족 신화는 ‘근친혼 → 중재 → 근친혼 허용/불허’를 그 기본구조로 삼는다. 이 기본구조를 바탕으로 남매혼과 사촌혼 모티프를 포함하는 코락족 신화는 다양한 변이를 보여준다. 이때 변이를 생성하는 요인은 첫째 남매혼과 사촌혼 같은 근친혼의 유형, 둘째 구체적인 중재 과정, 셋째 남매혼과 사촌혼 같은 근친혼의 허용 여부다. 따라서 변이를 생성하는 요인을 고려할 때 남매혼과 사촌혼 모티프를 포함하고 있는 코락족 신화에는 근친혼에 대한 코락족의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

코락족의 혼인 풍속에 집단혼(group marriage)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²⁶⁾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아내의 자매와 혼인하거나,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혼인하는 것도 집단혼의 한 흔적이다. 이 같은 혼인은 18세기 이전에 이미 코락족의 풍속에서 사라졌다.

20세기 초의 보고²⁷⁾에 의하면 코락족은 근친혼을 금지했다. 육친, 즉 어머니, 딸, 누이, 사촌, 고모, 이모, 조카 등과의 혼인을 금지했고, 그리

26) M. G. Levin and L. P. Potapov ed., op. cit., p866.

27) W. Jochelson, op. cit., pp.736-737.

고 인척, 즉 계모, 살아 있는 아내의 자매나 사촌, 죽은 동생의 아내, 죽은 아내의 언니, 형제 아내의 누이나 사촌 등과의 혼인을 금지했다. 특히, 남매 사이의 혼인은 고대로부터 금지되었고, 사촌 사이의 혼인은 18세기 이전의 코락족 혼인 풍속에서는 이루어졌다.²⁸⁾

[자료 7]과 [자료 8]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남매혼은 원천적으로 부정된다. 이런 인식은 남매혼 이후 의도적인 또는 비의도적인 중재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결국 다양한 중재 과정을 거쳐도 남매혼은 지속되지 못하고 불허된다. 이것은 코락족 혼인풍속에서 남매혼은 절대 금기 사항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촌혼은 남매혼의 경우와 다르다. 사촌혼은 코락족의 혼인 풍속에서 18세기 이전에는 허용되었고, 그 후에 금지되었다. 이러한 혼인 풍속의 변화는 코락족 신화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자료 9]와 [자료 10] 그리고 [자료 11]과 [자료 12]는 사촌혼 모티프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도 사촌혼은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이런 인식은 사촌혼 이후 의도적인 또는 비의도적인 중재 과정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이럴 경우 [자료 9]와 [자료 10]에서는 다양한 중재 과정에도 불구하고 사촌혼이 그대로 수용된다. 그러나 [자료 11]과 [자료 12]에서는 다양한 중재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사촌혼이 불허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자료 9]와 [자료 10]은 코락족 혼인 풍속에서 사촌혼에 대한 금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사촌혼이 이루어지던 시기의 신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자료 11]과 [자료 12]는 사촌혼에 대한 흔적을 반영하면서 그런 혼인에 대한 금기가 어느 정도 굳어지던 시기의 신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료 12]에는 교환혼의 흔적이 반영되어 있다. [자료 12]에서 먼저 ‘구름-남자’는 ‘에멤쿠트’에게 자신의 누이 ‘야할냐우트’를 보내어 혼인하게 하였고, 그 다음 ‘에멤쿠트’는 ‘구름-남자’에게 자신의 누이 ‘위네아네우트’를 보내어 혼인하게 하였

28) E. M. Мелетинский, *op. cit.*, p.69.

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교환혼은 사촌혼이 불허된 다음에 이루어졌다. 이처럼 코락족 <까마귀 신화>에 반영된 혼인풍속이 ‘남매혼 불허’ → ‘사촌혼 허용’ → ‘사촌혼 불허’(사촌혼 흔적) → ‘교환혼 허용’으로 변한 것은 곧 그들의 혼인풍속이 족내혼에서 족외혼으로 바뀌어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근친혼과 사회규범의 위반은 중요한 사회적인 그리고 자연적인 교환 관계를 파괴한다.²⁹⁾ 그럼으로써 사회적인 그리고 자연적인 영역에서 혼돈이 야기된다. 코락족 신화에 반영된 족내혼 → 족외혼 풍속은, 이 같은 혼돈이 질서로 변화되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V. 결론

W. Jochelson이 분류한 코락족 설화 유형 가운데 대부분은 ‘큰-까마귀’ Big-Raven 및 그의 가족과 관련된 신화다. 이런 신화에 등장하는 까마귀는 코락족의 민간전승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까마귀는 코락족 신화에서 다양한 위상으로 나타난다.

첫째, 까마귀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변형시키거나 무질서한 것을 조정하는 변형자 또는 조정자의 위상을 갖는다. 둘째, 까마귀는 코락족의 ‘최초의 조상’의 위상을 갖는다. 셋째, 까마귀는 고래 축제를 거행하고 동물을 잡는 방법을 가르치며 그리고 북과 배를 주고 주문(呪文)을 알려주는 등 문화영웅의 위상을 갖는다. 넷째, 까마귀는 장난스러운 변신 능력을 지니고 짓궂은 장난꾸러기라는 트릭스터의 위상을 갖는다. 다섯째, 까마귀는 정령의 말을 들을 수 있고 변신할 수 있으며 질병을 치료하는 등 샤먼의 위상을 갖는다. 여섯째, 까마귀는 ‘최고의 존재’

29) E. M. Meletinsky, *The Poetics of Myth*, Routledge, 2000, p.182.

와 사람 사이를 매개하는 신의 사자라는 위상을 갖는다.,

까마귀 자식들 사이의 혼인 또는 까마귀 자식들과 그들의 친척 사이의 혼인을 다루는 코락족 신화에서 근친혼 가운데 남매혼과 사촌혼의 모티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신화는 ‘근친혼 → 중재 → 근친혼 허용/불허’를 그 기본구조로 삼는다.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남매혼과 사촌혼 모티프를 포함하는 코락족 신화는 다양한 변이를 보여준다.

먼저 코락족 신화에서 남매혼은 어떤 중재 과정을 거치더라도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이와 달리 사촌혼은 일정한 중재 과정을 거치면 허용된다. 그러나 어떤 신화에서는 사촌혼이 어떤 중재 과정을 거치더라도 불허된다. 한 신화에서는 이 같은 사촌혼이 불허된 다음 교환혼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혼인 모티프를 포함하고 있는 코락족 신화의 다양한 변이는 곧 그들의 혼인풍속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즉, 코락족 신화에서 보이는 ‘남매혼 불허’ → ‘사촌혼 허용’ → ‘사촌혼 불허’(사촌혼 흔적) → ‘교환혼 허용’으로의 변화는 그들의 혼인풍속이 점차 족내혼에서 족외혼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자연적인 교환 관계를 파괴하는 근친혼은 사회적인 그리고 자연적인 영역에서 혼돈을 야기한다. 따라서 코락족 신화에 반영된 족내혼에서 족외혼으로의 변화는, 사회적인 그리고 자연적인 영역의 혼돈이 점차 질서의 상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참고문헌

- A.-J. Greimas, *Structural Semantics*, Univ. of Nebraska Press, 1983, pp.222-235.
- E. M. Meletinsky, *The Poetics of Myth*, Routledge, 2000, pp.181-182.
- M. G. Levin and L. P. Potapov ed., *The Peoples of Siberia*, The Univ. of Chicago, 964, pp.851-857.
- W. Jochelson, *The Koryak: Religion and Myths, The Jesup North Pacific Expedition*, Vol. VI, Leiden and New York, 1908, pp.17-382.
- A. И. Крушанова,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Коряко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1993, pp.113-153.
- В. А. Тишков ed., *Народы и Религии Мира*, Москва, 2000, pp.260-261.
- В. В. Антропова, “Представления Коряков о рождении, Болезни и Смерти”, И. С. Вдовин ed., *Природа и Человек в Религиозных Представлениях Народов Сибири и Севера*, Ленинград, 1976, pp.254-267.
- Г. А. Меновщикова, *Сказки и Мифы Народов Чукотки и Камчатки*, Москва, 1974, pp.399-494.
- Е. М. Мелетинский, *Палеоазиатский Мифологический Эпос*, Москва, 1979, pp.33-79.
- И. С. Гурвич, “Корякские Промысловые Праздники”, *Сибирский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IV, Москва, 1962, pp.238-257.

<Abstract>

A Study on the Aspects and Meaning of Marriage Custom in the <Raven Myth> of the Koryaks in Siberia

Kwak, Jin-Seok*

This paper revealed the aspects and meaning of marriage custom in the <Raven myth> and discussed the status of the raven in the myths which deal with marriage between offsprings of the raven and one between them and their relatives. Changes in marriage customs of the Koryak were also discussed.

Ravens appear in various status in the myths of the Koryak. They play the role of transformer or mediator, 'the first ancestor', cultural hero, trickster, shaman, and messenger of God.

Intermarriage motifs such as brother-sister marriages and cousin marriages have been identified in the myths of the Koryak, specifically involving marriage between offsprings of the raven and their relatives. These myths take 'intermarriage → mediation → permission/non-permission of intermarriage' as a basic structure. The Koryak myths including brother-sister marriage and cousin marriage motif show diverse variations based on this structure.

First, in the myths of the Koryak, marriage between a brother and sister is fundamentally not allowed despite any mediation process. However, cousin marriage is allowed if it goes through a certain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mediation process. Although, in some myths, cousin marriage is not allowed under any circumstances, and in one myth, exchange marriage appears after cousin marriage is prohibited.

Variations of the Koryak myths which include marriage motifs reflect the changes in their marriage customs. More specifically, they show that their marriage customs have passed from endogamous to exogamous.

Such change is indirectly showing that previous social and natural chaos caused by intermarriage is becoming more orderly.

Key Words : raven myth, raven's status, brother-sister marriage, cousin marriage, cross marriage, endogamy, exogamy, marriage custom

■ 논문접수 : 2013년 11월 11일

■ 심사완료 : 2013년 12월 9일

■ 게재확정 : 2013년 12월 16일